

# 호남석유화학, 신흥국 진출 가속화

신동빈 회장, 해외매출 비중 30-40%로 ... 중국·동남아에 기반 구축

최근 롯데그룹의 대권을 이어받은 신동빈 회장이 2018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0-4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2010년 11%였던 해외 매출비중을 2018년까지 30-40%로 끌어올리기 위해 석유화학 및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점포 분야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 진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신동빈 회장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의 사업회사를 그룹화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장래 중국에 제3의 롯데 그룹을 세우고,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제4의 롯데그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영체제에 대해서는 관련 “신동주 부회장은 일본을, 내가 한국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혀 신격호 총괄회장이 한국과 일본 롯데의 경영을 총괄하되 한국은 자신이, 일본은 신동주 부회장이 경영을 승계할 것으로 전망했다.

롯데그룹은 2010년에 총 3조6000억원을 투입해 11건의 인수·합병을 성사시켰으며 5건은 해외 M&A였다.

롯데는 해외 사업 확장을 통해 그룹 매출액을 2010년 61조원에서 2018년에는 200조원으로 늘리고, 영업이익률을 8%를 달성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2/21>